

환경호르몬에 의한 공해문제

우리 나라에서도 한 때 “환경호르몬”이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외인성 내분비교란 용의물질(外因性 內分泌攪亂 容疑物質)”, 즉 “몸의 외부로부터의 원인으로 몸 속에서 직접 혈액으로 보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으로 짐작되는 물질” 중에서 “알킬 페놀 에테르(alkylphenolether)” 등은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용의 “소프(soap)”로 사용되고 있어 공해물질로 지정되고 있다.

특히 “노닐 페놀(nonyl phenol)”은 물고기류에 강한 내분비교란작용이 있다는 것이 시험결과 밝혀져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약제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최근 영국으로부터 발표된 내분비교란화학물질이 영국의 하천에 미치는 임팩트(impact : 충격)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 ① 자웅동체(雌雄同體) 즉 암컷과 수컷이 한 몸에 있는 기형(奇型) 물고기가 잡히고 있음
- ② 물고기류의 수컷을 암컷으로 변형시키 화학물질류를 검증(檢證)하였음
- ③ 현 자연상태는 알려져 있는 상황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음
- ④ 물고기류의 내분비교란 등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함

등이 지적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본 클리닝환경보전센터가 환경보전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대처방안을 결의하였다. 또한 일본정부의 노동성 건강국 생활위생과에서도 “알킬페놀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문을 전국

구석구석까지 배포하여, 드라이·클리닝업자에게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